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SOC 구축 방향

원제무

Ⅰ. SOC 국가 경쟁력

1. 사회기반시설의 개념 및 유형

사회기반시설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제한적 소유나 이용이 한정되지 않으며, 생산 및 생활에 직접 활용되는 것이 아닌 국민 경제 전체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경제 주체의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 활동과 경제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본 또는 시설로 정의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대부분 사회 전반의 경제 활동을 위한 기반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하부구조, 즉 인프라 또는 공공 자본(public capital), 공공 인프라(public infrastructure)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용어가 1994년에 『민자유치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상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최근 정부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산업기반시설 중심의 현행 『민간투자법』의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위에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문화시설 등의 10개 생활 기반 시설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였다. 여기서는 산업기반시설의 민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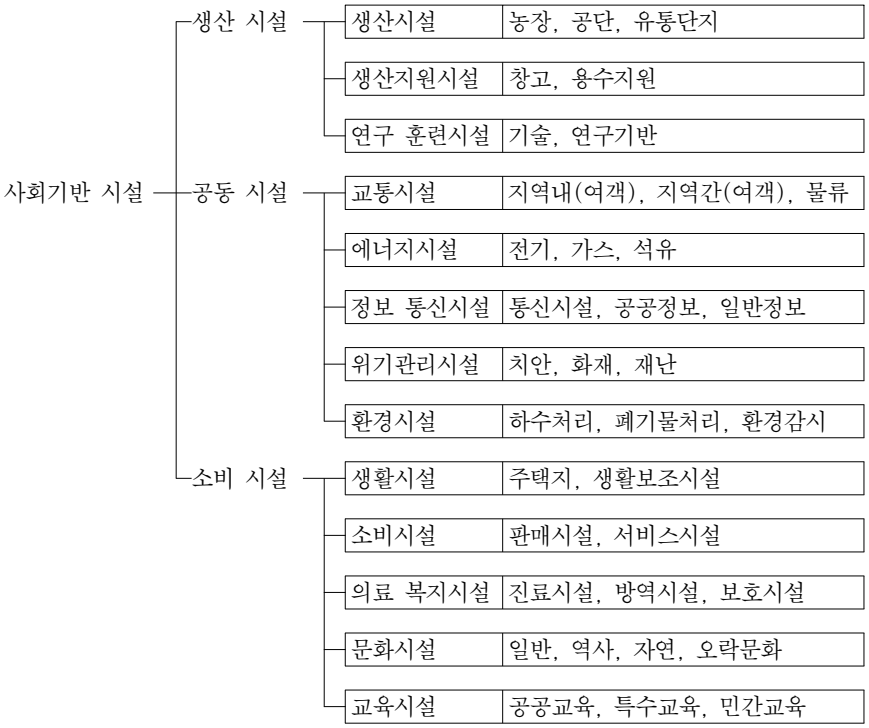
원제무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통물류학과, wonforum@nate.com, 직장전화:2220-0278, 직장팩스:2297-1585

자 대상사업에 생활기반시설이 포함되면서 해당 법률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었다. 결국 사회기반이 되는 즉, 생산과 생활의 보조시설로 사회기반시설의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것이다.

이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에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전형적으로 활용된다.

- 기능에 따른 분류 방법
- 법령에 따른 분류 방법
- 사회기반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 등에 따른 분류 방법

사회기반시설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생산시설, 소비 시설과 생산과 소비에 공동으로 필요한 공동시설로 분류된다. 이들의 세부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사회기반시설의 기능적 분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7개 구분의 53개 세부 시설로 제시하고 있다.

〈표 1〉 법령에서 제시하는 사회기반시설

구분	세부 시설(53개 유형)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관광,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지
유통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실,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등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표 2〉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2〉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분류

구분		시설 사례	분류의 의의
기본 성격	필수	관공소, 도로, 상하수도, 에너지	- 필수시설을 우선 확보 - 사업 우선순위 설정
	선택	공원, 도서관, 유원지	
배치 형태	지점형	우체국, 소방서, 파출소	- 시설배치 계획 - 시설의 적정배치 검토
	선형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전기통시선	
	면적형	공원, 대규모 시설	
입지 지향	수요지 지향	학교, 소규모 환경 에너지 시설	- 시설의 수요공급을 고려한 입지 계획 - 입지 대안 검토
	공급지 지향	대규모 환경 에너지 시설	
	공동 지향	도로, 철도 등 교통 시설	
배제 여부	배제 가능	철도, 유료도로, 병원, 유료공원	- 공공 민간의 역할분담 - 유 무료 접근 체계
	배제 불가능	무료도로, 무료공원	
경합 여부	경합	도로, 철도, 주차장, 상하수도	- 경합시설은 용량대책 - 비경합시설은 위치
	비경합	상징 시설	
혐오 여부	혐오	하수처리장, 납골당, 철탑, 교도소	- 신설, 확장 및 이전에 대한 주변반발 고려
	비혐오	학교, 시청, 구청, 공원, 전철역	

사회기반시설을 구축은 국가 및 국민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생산 활동을 촉진
- 자본 투자증대와 경제 활성화
- 지역의 균형발전 유도
- 물가 안정에 기여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기술 개발과 경영기법 향상 등

사회기반시설은 생산에 기반이 되는 시설로 기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사회기반시설로 도로와 철도 같은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 및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 결과 생산 활동이 촉진되는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투자가 증대되고 경제 활성화가 동시에 가능해진다. 도로, 철도, 에너지 공급, 용수, 폐기물처리 등의 생산기반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 생산 및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투자가 발생된다. 기업의 투자활동은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낙후지역을 겨냥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은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낙후지역과 연결되는 교통시설과 낙후지역에 특정한 산업 아이템이 유용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은 낙후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즉, 풍광이 빼어나지만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에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요양시설 또는 유락시설 등을 연계 확충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는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은 특정한 지역 또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하는 교통시설 확충은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생산비와 소비자 가격의 격차를 축소시키게 되고, 통신망의 구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공용하게 하여 소비자의 상품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을 유도

하게 된다.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산업 분야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 분야 활성화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와 국민들의 생활 분야에 대한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분야 활성화에 따라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의 증대와 소비 사회기반시설인 주거, 판매, 문화, 의료, 교육시설의 질적 향상의 병행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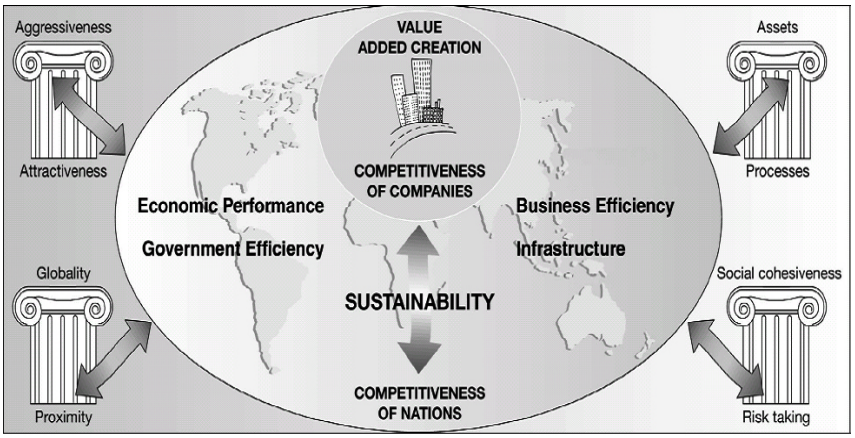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기술개발과 경영기법 향상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은 그 자체만으로 많은 기술 분야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며, 시회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 추가로 해당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게 된다. 즉, 도로나, 철도와 같은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 그 자체 기술수준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도로나 철도 위를 운행하는 자동차와 열차 제조와 관련된 산업을 반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이 점차 민간자본에 확충되어가는 추세에서 민간자본으로 건설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경영기술의 발전은 동시에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2. 사회기반시설과 국가경쟁력

IMD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지표 집단으로 infrastructure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기반시설과는 차이가 있다. IMD에서는 이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기술적인 infrastructure로 극복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유선전화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남아프리카, 폴란드와 멕시코에서 유선전화 단계를 뛰어넘어 무선전화시스템으로 곧장 진입하는 예를 설명하였다. 그리고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한 사항을 국가경쟁력 결정 변수로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IMD의 성적을 잘 받는 것으로 진정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림 2〉은 IMD의 WCY(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타원 밖의 대응적인 요소들이 국가의 성격을 좌우하고 경제적인 실현성(Economic

Performance), 정부의 효율성(Government Efficiency), 사업의 효율성(Business Efficiency)와 기반사항(Infrastructure)에 의해 사회시스템의 안정성과 그에 따른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경쟁력이 결정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2〉 경쟁력 사각형

물론 IMD의 지적대로 유선 전화기의 시기를 지나치고 무선 전화기의 시기로 곧바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회기반시설을 그렇게 뛰어넘는 방식(leapfrogging)으로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석기문화에서 곧바로 철기문화로 이행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청동기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석기문화가 청동기문화와 충돌할 경우 석기문화는 열악한 경쟁력으로 존재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1987년의 GDP가 119.32조원에서 1997년에는 496.99조원으로 416.5% 증가되었으며, 〈표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같은 기간에 사회기반시설은 553.3%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경제성장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다음 자료와 앞서 논의한 1990년의 미국 대통령경제백서는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표 3〉 연도별 국부통계조사상 사회기반시설의 부문별 비교

단위 : 10억원(명목가격 기준)

1968년		1977년		1987년		1997년
구축물		1. 공공자산	3,291.4	1. 교통부문	26,697	215,196
-교통시설	506.0	-도로	2,162.8	-도로	15,119	171,566
(도로)	(261.9)	-항만	114.4	-철도/지하철	9,859	35,919
-발전/배전	45.1	-공항	9.3	-항만	1,376	4,140
-수리/급수	130.9	-수리/치수	1,004.9	-공항	343	3,571
-기타시설	55.1	2. 공익자산	1,341.1	2. 생활편의	18,225	72,451
		-철도	779.4	-전기가스	15,254	50,298
		-통신	237.2	-상·하수도	2,971	22,153
		-상수도	324.5	3. 수리/치수	15,697	72,081
				4. 통신부문	10,545	28,530
총액	737		4,632.5		70,164	388,258

자료 : 10년마다 한번씩 출간되는 통계청, 「국부통계조사보고서」 참조

Ⅱ. 사회기반시설 구축 방향 결정 배경

1. 국내외 여건 변화

사회기반시설 구축에는 다음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 국제 관계의 변화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고령화, 정보화, 친환경적 Well-being 선호를 꼽을 수 있다. 이들 여건 변화 항목들은 상호 작용을 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상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고령화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산가능인구의 축소와 가용자금의 위축, 기술개발의 위축과 같은 공급능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의료, 사회복지 등 수요를 야기하고, 소득의 배분 면에서도 생산인구 대비 비생산인구의 비율이 급증함에 따른 평균소득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일 수 있으며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고령화를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인집단이 사회구성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 기존에 소극적인 이권 표현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

며, 노인집단에서의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

국내 여건 변화 가운데 괄목할만한 사항중 하나가 정보화이다. 한국전산원(2005)의 국가 정보화 백서에서는 국가정보화 지수를 주요 50개 국가중 3위로 평가하였다. 이 같이 평가하는 데에는 인터넷 기반과 이용자 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에서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거의 모든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며, 정치, 사회, 문화 및 사업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내 여건변화의 큰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테마의 하나가 친환경 웰빙(well-being) 문화이다. 웰빙이 구미 및 일본에서는 요가, 식품, 광광 등의 분야에 한정된 것에 비해 국내의 웰빙 문화는 비교적 도입 시기는 늦지만 식품은 물론이고 가정, 섬유, 건설 등 산업전반에 파고들어선 특성을 갖고 있다. 〈표 4〉은 구미와 일본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국내의 웰빙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웰빙 개념의 확산에서 구미 일본과 한국의 차이

구분	구미	일본	한국
본격적 등장시기	- 1990년대 이후	- 1990년대 이후	- 2000년대 이후
등장 배경	- 사회대안운동 확산과 함께 생활속에서 웰빙 개념 체득	- 건강붐 조성	- 대중매체의 적극적인 개입 - 황사, 광우병 등 환경 재해에 대한 공포
사회적 웰빙과의 관련성	- 여성건강 및 복지와 관련	- 고령자, 장애인 등의 복지와 관련	- 복지와는 무관 - 개인의 웰빙 추구에 관심
웰빙시장의 범위	- 요가관련 상품 - 유기농 자연식품	- 건강식품 중심	- 식품, 가전, 섬유, 건설 등 전 분야에 영향

자료 : 전영옥, 웰빙 문화의 등장과 향후 전망, Issue Paper, 2005, 5. 3, http://www.seri.org

국제관계 변화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경제 bloc화, 자유무역지대(FTA), 국제 물동량 변화, 에너지 및 기초자원 수요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국제 관계의 변화는 70년대와 80년대 이전까지 지속되었던 이념의 대립이 무의미해지면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간의 경제적인 공

생이 서로 보다 유익하다는 생각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새롭게 기지개를 하는 중국의 시장경제가 국제물동량의 변화와 막대한 에너지와 기초자원의 수요처가 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된 것이다.

2. 사회기반시설의 수요행태 변화

과거에는 사회기반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수요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설의 구축 또는 운영관리자의 관점에서 기능적인 효율성만이 주된 관심사항이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멋없고 밍밍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는 이용자들의 반발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회기반시설 수요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창출하게 되었다. 수요자들의 사회기반시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시설의 고급화
- 시설의 다양화
- 시설의 대형화
- 시설의 전문화
- 시설간 종합적 네트워킹

사회기반시설 가운데 수요자가 직접 접하거나 지역주민들이 접하게 되는 시설은 고급화 요구가 발생하게 된다. 보도블럭의 재질과 디자인, 가로등의 디자인, 복지시설의 공간 구성 및 조경, 하수 처리장 이나 유수지의 복개처리 및 조경, 방음벽의 재질 및 디자인 등등 많은 사회기반 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 구성물들에 대한 고급화의 요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사회기반시설이 단일의 기능을 하는 것에서 다기능을 동시에 발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역과 터미널은 역이나 터미널의 기능만 발휘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역과 터미널이 갖고 있는 보다 좋은 접근성 및 이동성의 기능에 따라 부수적으로 만남의 공간 기능, 문화의 공간 기능, 쇼핑 공간기능 등 많은 기능을 탑재한 복합적인 시설로 입지를 갖게되는 것이다. 재해방지를 위한 유수지도 평상시의 주변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개되어 주차장으로, 공원으로 기능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 및 재료기술의 발달과 따라 예전에 구현하기 어려웠던 대형화된 사회기반시설의 구현이 요구에 따라 가능하게 되고 있다. 대규모의 집회시설, 문화 공간이 가능해지고, 대규모의 공급시설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대규모의 사회기반시설 확보가 변화되는 트랜드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이 보다 전문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같은 요구는 특히 다른 시설기능이 연계되는 경우에 본래의 기능이 악화되거나 기능의 고급화를 도모할 수 없는 경우에 특히 절실하다. 특성화된 공원, 하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배수처리, 요양 및 의료시설, 고속의 교통처리시설과 저속의 교통처리시설 등은 모두 이 같은 전문화적인 기능발휘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적이면서 복합적인 것, 규모가 작지만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두 사회기반시설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므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

Ⅲ. 사회기반시설 구축 방향

사회기반시설은 건설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정책결정과정과 계획 및 설계기간과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건설이 되고 건설된 이후에는 장기간 활용이 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의 구축은 다음 사항에 대한 중점적인 고려와 계획 반영이 필요하겠다.

-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된 기반시설 구축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 집중
- 사회기반시설의 네트워킹화
- 사회기반시설 수요행태 변화 반영
- 구축 기법의 전문화 및 효율화
- 국제적인 연계 및 지역 경쟁력 확보 보조

1.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된 기반시설 구축

사회기반시설은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이 고려되어 시설의 배치 및 규모, 기능 구성 등이 이루어져야겠다.

사회기반시설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각각의 사회기반시설별 적정한 배치와 규모 선정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교통시설의 경우에는 광역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크 선형의 결정이 네트워크의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불합리한 네트워크 선형은 지속적으로 사회비용을 유발하여 국가경쟁력을 잠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소 혹은 과다 계획을 하거나 적정한 지역에 교차점(철도의 분기역, 고속도로의 IC, 일반도로의 교차로 등)을 형성하지 못하면 동일하게 막대한 사회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을 보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의 결정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도 변화되게 된다. 사회기반시설의 하나인 공항에서 활주로 방향의 설계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사항도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활주로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이에 따라 소음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규모와 심각성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악취가 발생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및 설계 등에 대한 사항의 사소한 결정이라도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현격한 차이가 생기게 된다.

2.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 집중

사회기반시설은 건설에 막대한 기간이 소요되고, 반영구 또는 영구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확산 구축하는 계획적 집중 구축과 단계적인 분산전략이 바람직하다.

교통시설의 하나인 터미널은 도시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심부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전되어 도심내부에 터미널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교통혼잡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외곽부에 적정한 공간을 초기에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 도시 전체는 터미널로 인해 유형 또는 무형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인 도시화의 진전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도시에는 소규모의 문화시설이 한 두개 있어도 충분히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하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 도시화가 진전되고 도시의 규모가 성장되면서 인접 소규모 도시에 소규모 문화시설을 배치하는 것보다 중심도시에 대규모의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이 같은 계획적 집중은 향후 문화적 수요가 급증하고 인접 소도시도 일정규모 이상 성장하는 경우에는 분산과 적정한 규모의 시설 확보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3. 사회기반시설의 네트워킹화

유사한 종류 또는 연계하여 효과가 증폭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간에는 네트워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기반시설을 네트워킹화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인식 및 홍보 강화
- 사회기반시설 활용 주민들의 편의 향상
- 사회기반시설 정보제공 효율성 향상

4. 사회기반시설 수요행태 변화 반영

사회기반시설은 이를 이용하는 수요의 양적 질적 특성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의 수요는 항상 증가하지만은 않는다. 출산율이 저하되어 학생 수요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에 대한 수요는 감소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기반시설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요가 책을 보는 것보다 전자 자료를 활용하고자하는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그에 적합하게 전자 자료를 이용하기 편리한 체계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구축 기법의 전문화 및 효율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시설설계 및 계획가를 포함하여 금융 전문가, 공공분야의 전문가, 사회기반시설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행태분석 전문가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기술 수준이 발전되고 새로운 개념이 사회기반시설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면 이와 관련된 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 시스템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노력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능력을 최대한 증폭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국제적인 연계 및 지역 경쟁력 확보

사회기반시설중 특히 교통시설은 국제적인 연계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국내에만 한정된 네트워크가 아닌 국제적인 연계를 고려한 네트워크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해양 쪽으로 일본과 미국 등 태평양 인접국가와 연계를 고려한 시설계획과 대륙 쪽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반영한 시설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설이 구축되고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낙후된 지역에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과도집중에 따른 사회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사회기반시설 확충방향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및 정책적 건의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은 이 같은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민들을 보다 잘살게 하는 잠재력이다. 국가경쟁력은 IMD와 같은 기구에서 만들어낸 성적이 모든 것이 되지는 않는다.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많은 요인 중에 등뼈처럼 보이지 않지만 든든하게 국가 경쟁력을 지탱해주는 것이 사회기반시설이다. GDP와 사회기반시설 확충간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을 미국 대통령경제백서(1990)와 국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파악할 수 있었다.

사회기반시설을 백지상태에서 확충하는 시기는 지났다. 따라서 이전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같은 시설을 확충하여도 보다 유용하고 효율적인 시설 확충과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변의 변화되는 상황을 근거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된 기반시설 구축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 집중
- 사회기반시설의 네트워킹화
- 사회기반시설 수요행태 변화 반영
- 구축 기법의 전문화 및 효율화
- 국제적인 연계 및 지역 경쟁력 확보 보조

IMD에서 비록 제시하지 않았다 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국가 경쟁력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사회기반시설을 적시 적소에 설치하지 않으면 추가 사회비용부담으로 인해 실제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다. 더욱 발전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능이 떨어지는 사회기반시설의 대대적인 보완 노력만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인 것이다.

참고문헌

1. 원제무(1998), 도시시설론, 보성각.

2. 조정제(1991), 도시경영, 법문사.
3. 왕세종(2005),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 한국전산원(2005), 국가정보화백서.
5.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1990),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Washington D.C.
6. IMD(2005), World Competitiveness Year Book.
7.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
8. 법제처(http://www.moleg.go.kr/)
9. 삼성경제연구원(http://www.seri.org/)